신임회장 취임사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학회가 되길 바라며

우리 한국고분자학회가 설립된지도 어언 2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역대 회장님과 임원들의 노고로 우리 학회는 장족의 발전을 이룩했고, 또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훌륭한 업적을 쌓아 왔습니다. 이번에 부족한 제가 제16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우리 학회를 위해 봉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난 해부터 우리 나라에 밀어닥친 IMF로 인해 주위의 제반여건과 학회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회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셔야 힘을 얻어 우리의 학회를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 고분자의 학술적인 발전과 기술보급이 잘 이루어 질 수 있게되기를 바라면서 금년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매년 간행되고 있는 회지 발간사업으로는 한국고분자학회지 「고분자과학과 기술」(격월간 짝수달 발간), 국문 논문지 「폴리머」(격월간 홀수달 발간) 및 영문지 「Korea Polymer Journal」(격월간 짝수달 발간)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시켜 갈 것이며, 본 학회의 정기적인 연례행사인 춘계·추계 총회와 학술연구 논문발표회, 고분자 아카데미, 고분자 산학연 심포지움, 고분자 기기분석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적 행사로는 우리 나라에서 8월중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제2회 동아시아 첨단고분자 심포지움을 주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8월중 한·중 국제공동 학술대회 참여, 10월중 일본고분자학회 주최 국제고분자회의 IPC99 참여, 12월중 중국에서 개최되는 Pacific Polymer Conference 참여 등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학회회원 확보와 지부 활성화에 힘쓸 것이며, 고분자과학 및 고분자공업의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운영과 연중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이미 선출된 수석부회장 김광웅(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회장 신현주(LG 엔지니어링), 부회장 김성철(한국과학기술원), 부회장 최철림(KIST) 이외에 운영이사로 전무이사 김낙중(KIST), 총무이사 이상원(숭실대), 학술지 편집이사 김준경(KIST), 영문지 편집이사 김진곤(포항공대), 기술지 편집이사 김환규(한남대), 재무이사 박문수(수원대), 산학연 기획이사 김성훈(한양대), 차국헌(서울대), 고분자아카데미 기획이사 박태욱(국립기술품질원), 이명훈(전북대), 고분자기기분석 기획이사 육순홍(화학연구소), 신동명(홍익대), 조직이사 이명천(동국대), 하창식(부산대), 최동훈(경희대), 정보전산이사 류주환(충남대)임원 등을 선임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에 선임된 운영이사들이 열심히 일하여 우리 한국고분자학회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바야흐로 금년은 새로운 밀레니엄, 21세기를 준비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닥쳐올 여러가지 국내외의 상황에 대비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본 학회에서는 이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학회발전연구위원회를 두었으므로 회장선출 방법 등에 관한 일을 비롯하여 단계적으로 학회발전에 관한 제반 사업 등을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학회에서 꾸준히 수행해온 산·학·연 협동프로그램들은 참으로 우수한 내용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도 6월중에 제7차 고분자 아카데미를 계획하고 있으며, 8월중에는 제6회 고분자 산·학·연 하계 심포지움을 열고, 11월에는 제21회 고분자 기기분석 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모든 행사를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학계뿐만 아니라 연구소 및 산업계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학회발전에 많은 공을 남기신 전임회장과 임원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회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1999년 1월 1일

신임회장 **성 용 길**